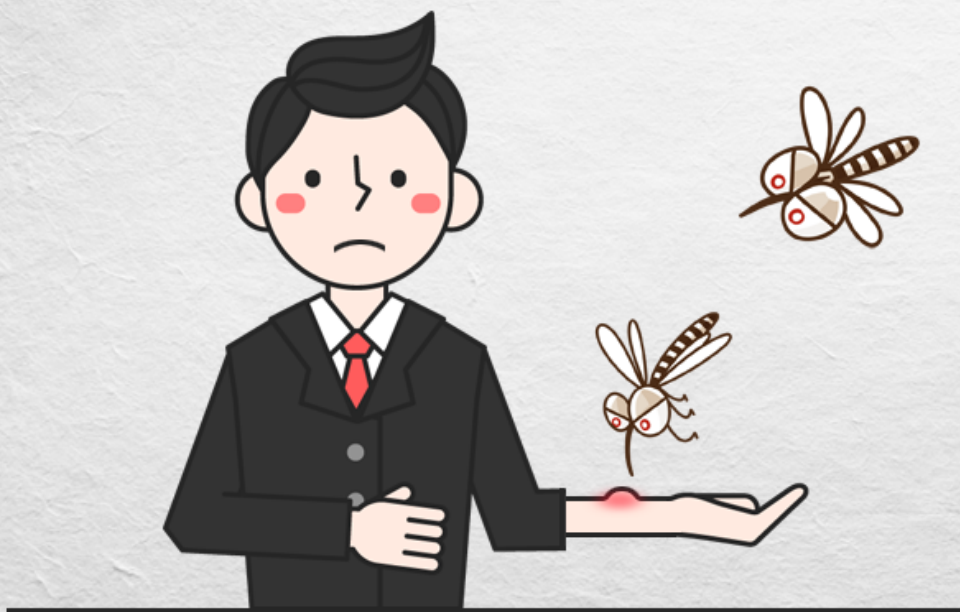


‘뎅기열(Dengue fever)’이란?

뎅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발열성 감염병으로,
주로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 물려 전파되지만,
드물게 혈액을 통한 전파 또는 수직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수직감염: 모체에서 태아로 직접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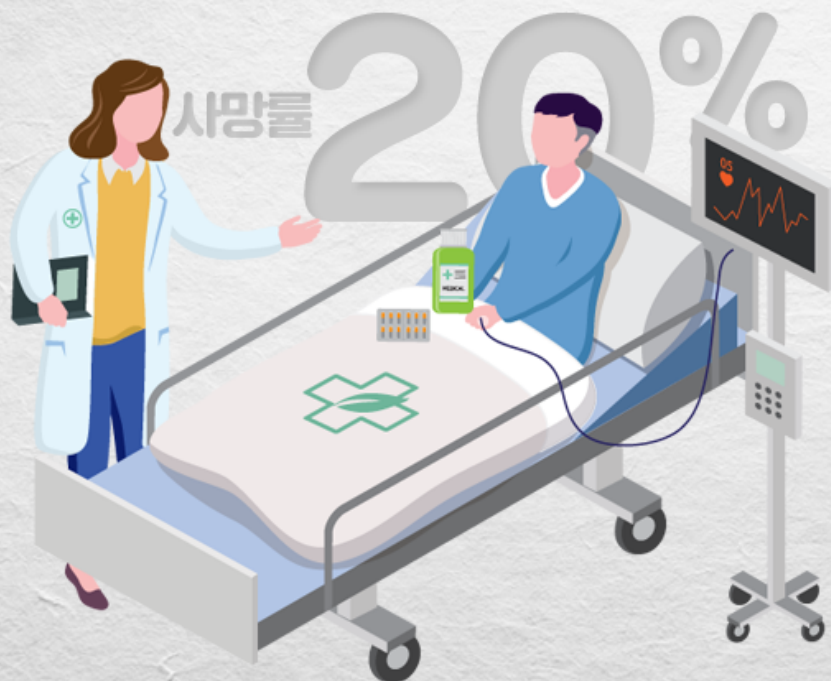
덴기바이러스 감염자 중 **75%정도는 무증상**이라고 해요.
덴기열은 감염된 모기에 물리고 3일에서 14일 사이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4일에서 7일 사이에 발생하게 되며,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안와통증, 근육통, 발진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덴기출혈열이나 덴기쇼크 증후군 같은
중증 덴기감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증 Dengue 감염증이란?

심각한 출혈 또는 혈압하강, 장기기능저하등이 나타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률이 20%에 이릅니다.

첫 번째 감염과 다른 Dengue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 Dengue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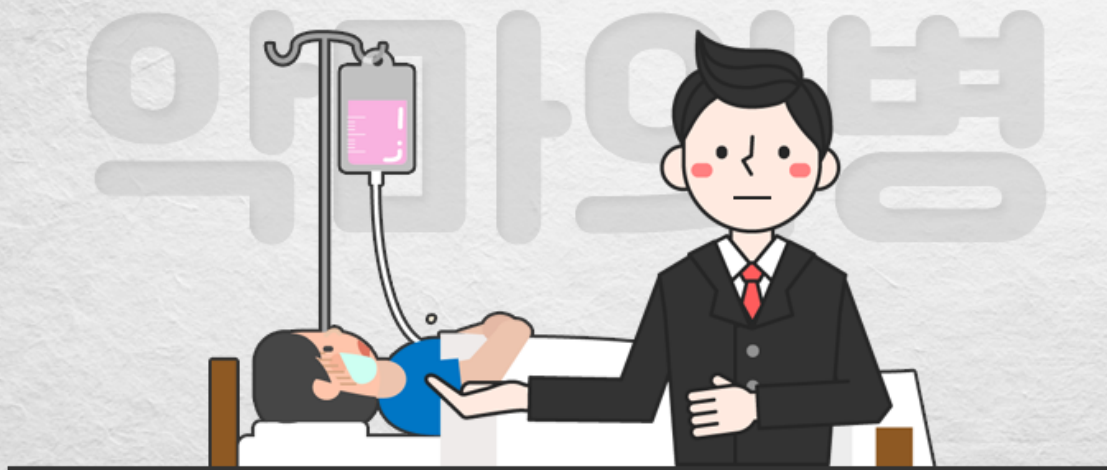
덴기열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의사항: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하며 **아스피린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치사율은 약5%

(조기치료시 1%,이지만,치료시기가 늦으면 20%)



덴기열 예방을 위한 여행 중 **주의사항**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 선택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야외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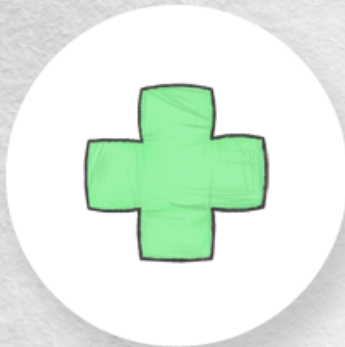


모기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지 말 것



야외 활동 시,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방문 지양

덴기열 예방을 위한 여행 후 주의사항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릴 것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헌혈 보류기간에
헌혈 금지